

“북, 9일이나 10월 10일 전후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군, 사거리 270km 미사일 발사 공군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4일 새벽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 270km인 슬램-ER 장거리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동해안에서 슬램-ER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미 본토 핵공격 입증 위해 고각 아닌 정상각” 관측 “美 폭격기·해항모 등 배치...대북 군사 압박 수위 높일 것” 송영무 국방 “북 전쟁 지도부 겨냥 12월 참수 부대 창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오는 9일이나 10월 10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각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활동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이 대미 핵투발 수단을 확보했다고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ICBM급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북한이 9월 9일이나 10월 10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각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한

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응 조치로 “미 항모함대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방안을 한미 협조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략무기를 적국적·공세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양으로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유사시 북한에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폭탄(핵폭탄)을 탑재하는 B-1B, B-52, B-2 폭격기를 비롯한 한 국가의 전투력과 맞먹는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출동이 예상된다.

한미는 북한 지도부의 가상 은신처를 목표로 설정, 전략폭격기의 실제 무장 투하 훈련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단독 대응 조치로는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사격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



착되면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도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표적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독자적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조기 구축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한미 확장역제전 연합의체(EDSCG) 등을 통한 확장역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의원들과 언론 일부에서 전술핵 배치 요구가 강하니 정치적, 정례적인 억제 자산 전개를 한반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를 미국에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북한 전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 “개념 정립 중인데 오는 12월 1일부터 부대를 창설해서 전격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말 정도에는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특수임무여단 형태로 부대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군사적 대치를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어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상황에서 배를 건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 핵실험장 갱도 붕괴된 듯...국내 방사선 준위 ‘자연 상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차 지진으로 갱도가 일부 붕괴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방사선 준위는 자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전국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포함한 160개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모니터링 결과 공간감마선량률이 정상수준인 시간당 50~300 나노시버트(nSv)를 유지하고 있다. 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부터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감시 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2대의 고정형 방사선 계는(Xe) 탐지 장비에서도 제논이 검출되지 않았다.

KINS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과 협의해 기류 등을 분석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해상에서 이동식 포집장비도 가동하고 있다. 제논은 핵실험 중 발생하지만 자연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질로 꼽힌다. 하지만 반감기가 짧은 데다 대기 중으로 퍼지

는 성질이 있어 핵실험 후 열을 이내에 탐지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탐지 위치, 풍향, 풍속, 방사능 농도에 따라 좌우된다.

김철수 KINS 방사능분석센터장은 “북한 핵실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탐지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기류 동향을 분석해 포집활동을 하고 있지만 바람의 방향으로 볼 때 지상에서 포집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본다”며 “대기 중 부유 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공중 탐지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1차 분석 결과는 이르면 6일 오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와 KINS는 과거 5차례 북한 핵실험 후에도 방사선 계는 포집을 시도했으나, 유용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다. 1~3차, 5차 핵실험에서는 국내에서 방사선 계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4차 핵실험에서는 한 종의 동위원소가 탐지됐으나 양이 너무 적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국회, 북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전날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

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회의 형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됐다. 결의안은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기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유승민·김세연·지상욱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규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없어서’ ‘내용이 약해서’ 등의 이유를 들어 결의안 채택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리더들의 고품격 네트워크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품격있는 강연문화를 선도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명품 강사진으로 2017년 2학기를 엽니다!



이흥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중 한명이다. 1979년 라디오 프로그램 '가요행진' MC로 데뷔한 뒤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시트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박정자

한국 연극계 거장, 국내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배우다. 1962년 연극 '페트라'로 데뷔해 정성준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영이별 영이별', '제 여자 이야기' 등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영화 '마스터' 등 스크린 '박수건달'에서도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정철

국가대표 카피라이터. 대기업부터 몰란과 아마켓 등 영화까지 25년 광고 카피를 쓰고 있다. 정치광고계에 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바람이 다르다'는 카피를 쓴 문재인대통령의 카피라이터.



권은진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에 권디미이라는 이름으로 출연, 171cm라는 모델치고는 작은 신장에도 패션쇼와 광고모델까지 섭렵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슈퍼모델.



고규홍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국의 대표적 생태학자다. 전라포수목원에서 20여년 세월 나무와 함께 살을 보냈다. 우리가 몰랐던 나무의 이야기,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전하고 있다.



이두현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풍선', '새벽까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다섯손가락의 리더로써, 이후 유학을 떠난 뒤 현재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왕성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김흥신

정권소설 '인간시장'을 펴낸 소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소설을 넘어 수필, 시집, 콩트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정부희

프랑스에 '파브르 곤충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부희 곤충기'가 있다. 사비를 털어 개인 곤충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대중들에게 쉽게 곤충을 소개하고 있는 곤충학자다.



박재동

근대 만화가 보여준 풍자 정신을 우리 시대에 계승한 만화가다. 국내 만화계의 거장으로 80년대 후반 민중화 세대의 진보의식을 대변한 만화 운동가이자 시사만화가.